‘잠수함’ 임기영, 첫 승하고 4선발 꿰찰까

SK전 1실점에도 승 못 올려
오늘 잠실 두산전서 재도전
KIA 마운드 고민 해결 기대

선발각축을 벌이고 있는 KIA의 ‘신 잠수함’ 임기영이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경기에서 첫 선발승에 도전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괜찮다”고 웃던 임기영(24)이 ‘진짜 주인공’을 꿈꾼다.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임기영이 12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선발 첫승에 도전한다. 임기영에게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큰 두 번째 선발 무대다.

그는 자신의 첫 선발 등판경기였던 지난 6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4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주어진 역할을 완벽수행했다.

여기에 3-1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첫 선발 등판, 선발승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7회 좌완 심동섭이 한동민에 솔로포를 허용한 데 이어 8회에는 우완 한승혁이 최정에게 역전 투런포를 얻어맞으면서 임기영의 승리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난 후 임기영은 “팀이 이겨서 좋다”며 방실방실 웃었다. 이날 KIA는 8회말 김선빈의 2타점 적시타로 6-4로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챙겼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호투와 승리였다. 임기영과 SK 김주한의 맞대결이 예정됐던 5일,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취소됐다. 그리고 SK가 6일 선발을 ‘에이스’ 켈리로 바꾸면서 임기영은 막강한 적을 만나게 됐다. 여기에 첫 선발 등판이라는 점에서도 SK의 우위가 점쳐졌다.

그러나 임기영은 “오히려 켈리를 만나게 돼서 마음이 편했다”며 씩씩하게 이닝을 채워갔다. 임기영의 공격적인 승부에 SK 타자들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고, 기싸움에서 밀린 켈리가 4회 먼저 3실점을 하며 흔들렸었다.

임기영의 두산전 등판은 개인은 물론 팀에도 중요한 시험대다. 옆구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김진우가 11일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에 돌입하면서 4·5 선발 경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임기영에게는 선발 굳히기를 위한 자리.

팀도 헥터-팻딘-양현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마운드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는 4·5선발이 고민이다. 여기에 불펜까지 요동치는 ‘마운드 비상 상황’이다. 불펜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발진에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끌고와 줘야 한다.

임기영은 자신감과 정교함으로 두산과 대결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 시절만큼 스피드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배짱 두둑한 임기영은 제구로 자신의 장점을 살릴 계획이다. 임기영은 흔히 말하는 ‘손가락 장난을 잘 치는’ 투수다. 특기인 체인지업으로 첫 경기를 잘 풀어갔던 그는 커브로 수 싸움에 복잡함을 더하기도 했다.

임기영은 “팔보다는 몸을 쓰는데 신경 쓰면서 공이 날리는 게 많이 줄었다. 스피드에 큰 욕심은 내지 않을 생각이다. 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좋은 기억이 있다. 한화 시절 불펜에서 역할을 했던 그는 2013년과 2014년 구원승을 거둔 적이 있다. 2승 상대가 모두 두산이다.

임기영이 “2승이 있는데 모두 두산전에서 기록했다. 기대된다”며 웃음을 보이기는 했지만 선발 첫승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전력으로 승부를 할 수 있었던 불펜이 아닌 선발이라는 게 변수다. 공격적인 승부와 함께 효율적인 이닝 관리가 필요하다. 또 앞선 등판보다는 더 까다로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첫 상대였던 SK는 타선이 동반 슬럼프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한방 있는 두산은 세밀함까지 갖추고 있다. 두산은 이번 시즌 8번 100%의 도루 성공률로 8개의 도루를 기록, 최다 도루팀에 올라있다.

임기영이 ‘난적’ 두산을 상대로 첫 승을 신고하며 KIA 마운드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선아 도와줘

류현진 14일 컵스전 선발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선이 14일(한국시간) 시즌 두 번째로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을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을까.

류현진은 지난해 월드시리즈(WS) 우승팀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14일 오전 3시 20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선발 등판한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어깨·팔꿈치 수술 후 복귀 무대이던 8일 ‘투수들의 무덤’인 콜로라도 주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4.2이닝 2실점 하고 페이스를 끌어올린 류현진은 컵스의 막강 타선을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도전한다.

좌완 브렛 앤더슨과의 대결에서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달성하고 승리도 수확한다면 금상첨화다.

류현진의 컨디션이 아직은 전성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컵스와 중반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치려면 다저스 타선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저스 타선의 ‘왼손 투수 징크스’가 지난해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이어진 가운데 다저스는 9일 콜로라도의 좌완 선발 타일러 앤더슨을 무너뜨리고 ‘왼손 울렁증’에서 한숨을 돌렸다.

로건 포사이드, 저스틴 터너 두 오른손 타자의 맹타와 좌타자 코리 시거의 투런포가 일찍 터져 앤더슨을 상대로 5이닝 동안 5점을 뽑았다. 10-6으로 승리한 다저스는 올해 왼손 선발 투수를 상대로 첫 승리를 낚았다.

지난해 3경기 19.2이닝 동안 4점을 얻는 데 그쳐 2승이나 헌납한 ‘천적’ 앤더슨을 넘어섰다는 큰 소득을 얻었다.

다저스 타선은 지난해 왼손 투수 상대 팀 타율(0.213), 출루율(0.290), 장타율(0.332)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꼴찌로 처졌다. 그런 약한 모습이 올해 초반에도 이어지자 현지 언론이 크게 주목했다. 특히 좌완 상대 팀 타율은 지난 100년간 포스트시즌에 오른 팀 중 최악이었다고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이 9일 소개했다.

ESPN은 앤더슨 공략을 보니 다저스 타선이 (왼손 투수 대응에서) 진일보한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 컵스와의 3연전에서 까다로운 왼손 투수 존 레스터, 브렛 앤더슨과 상대한다며 다저스 타선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아사다 마오 은퇴 선언

김연아에 밀려 2인자로…‘평창 드림’도 접어

비운의 일본 여자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27)가 10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아사다 마오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갑작스럽지만, 나 아사다 마오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서 끝내려는 결단을 했다”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스케이트가 가능했던 것도, 많은 일을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으로부터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아사다 마오는 한때 김연아(은퇴)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 피겨 최고의 스타다.

그는 2004-2005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성인 무대에선 김연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2인자 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 밀려 은메달 획득에 그쳤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그는 김연아가 은퇴한 뒤에도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포기하지 못해 은반을 떠나지 않았다.

한동안 휴식을 취하던 아사다 마오는 2015년 복귀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아사다 마오는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일본이 최근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 2장을 얻는 데 그쳐 ‘평창 드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본 여자 싱글은 미야하라 사토코(19)가 독보적인 기량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히구치 와카바(16), 미하라 마이(18), 혼다 마린(16) 등 차세대 피겨 스타들의 성장세가 빠르다.

일본 피겨는 6월 이후 선발전을 치러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할 2명의 선수를 뽑을 예정인데, 아사다 마오가 상위 2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아사다 마오는 작년 12월에 열린 제85회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서 24명의 선수 중 12위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피겨 내에선 아사다 마오를 편안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었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안도 미키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사다 마오에게 올림픽 성적을 위한 응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 박수를 보내주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주간 ‘유럽 1위’

ESPN 파워랭킹 순위

왓퍼드전에서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주 유럽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꼽혔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ESPN이 발표한 파워랭킹에서 잉글랜드뿐 아니라 독일·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전체 리그에서 1위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왓퍼드전에서 델리 알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데 이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ESPN은 후반 39분 손흥민의 논스톱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한 순간을 언급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해리 케인의 발목 부상 후 손흥민이 그 빈자리를 메우면서, 토트넘의 6경기에 출전해 7골 2어시스트로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 매체가 매긴 순위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 로멜루 루카쿠(에버턴) 등을 제쳤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주말 자신의 전 소속팀인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4-1 승리를 주도했다.

EPL 득점 선두 루카쿠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리그 22, 23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4-2 승리에 공헌했다.

이밖에 4위는 곤살로 이과인(유벤투스), 5위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남태희 동점골 레퀴야
AFC 챔스리그 조1위

남태희가 동점 골을 터트린 레퀴야가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선두로 올라섰다.

레퀴야는 11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테그랄 쿠제스탄FC와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레퀴야는 2승 2무(승점 8)를 기록, 에스테그랄(승점 7)을 따돌리고 B조 선두로 올라섰다.

남태희의 결정력이 빛난 경기였다. 이날 터진 2골에 모두 관여하는 맹활약이었다.

전반 9분 선제골을 내준 레퀴야는 전반 35분 남태희의 동점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남태희는 페널티 지역 왼쪽 구석에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에스테그랄의 골그물을 흔들었다.

레퀴야는 전반 43분 알모에즈 알리의 역전 결승 골로이 터지면서 승리에 쐐기를 박았고, 이 역시 남태희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남태희가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키퍼가 펀칭했지만, 볼은 바로 앞에 있던 알리의 몸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2-1이 됐다. /연합뉴스